

현장시선



김 정 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이동권의 증진,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필수정책으로 자리잡았다. 환경과 관련해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들, 그리고 이에 동참하려는 도시들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시정책의 제1목표로 두고 있다. 게다가 자가용을 안 타는 것은 단순히 기후위기나 대기오염 등을 대응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 교통체증의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대중교통의 활성화는 보행

버스 준공영제 문제 해법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서

과 자전거 이용을 크게 늘려 도시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도로 확장을 막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안전한 보행공간, 자전거 이용공간을 마련하고 더 많은 도심 녹지와 시민의 휴식공간을 늘린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도시를 걸어서, 자전거로 이동하게 되면 지역의 상권이나 문화, 교육공간의 활용도가 증대되고, 공동체의 회복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도시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인간성의 회복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도시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처방이 바로 대중교통 활성화인 셈이다.

그런데 최근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다소 의외다. 준공영제의 문제의 해결이 완전공영제 전면도입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활성화가 아니라 버스감차, 민영화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다. 도심 내에도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드물게 다니는 곳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읍면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버스의 부족과 불편한 노선운용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마당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마련과 이행은 고사하고 감차와 민영화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준공영제의 대안은 결국 공공성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준공영제가 사실상 기존 버스회사의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나아가 사모펀드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바뀌었다는 점은 준공영제가 사실상 공공성을 상실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결국 준공영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완전공영제 실시 등의 공공성 강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공영제, 대중교통의 할인, 무료화는 대표적인 기후위기 정책으로 손꼽힌다. 대중교통을 단순히 경제성이나 효율로만 평가하면 진정한 가치인 이동권리와 기후위기 등 환경위기의 대응은 먼 얘기가 되고 만다. 지금 민영화나 감차를 거론하기 이전에 대중교통의 혜택이 다다르지 않는 오지가 없도록 읍면과 도심이 대중교통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 제주에서 기후동행카드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마추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를 고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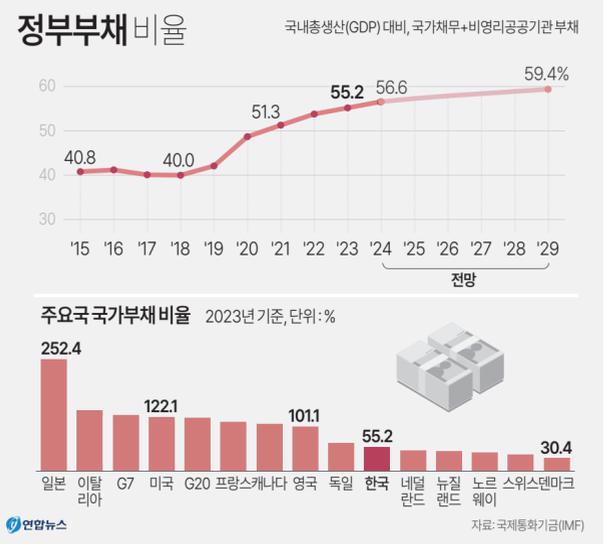
사설

도민체육대회 60년 눈앞 환골탈태 할 때

제5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19일 막을 올린다. 21일까지 강창학종합경기장 등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최다인원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제주 최대 스포츠 한마당 축제에 펼쳐진다. 대회개최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관계자 및 관계자 등에게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이 대회는 제주도체육회가 제주체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1966년 창설하면서 시작됐다. 첫 대회는 '도민종합체육대회'라는 명칭으로 1966년 5월 16~17일 이틀간 개최됐다.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2020년과 체육회 사정 등으로 취소된 두 차례를 제외하곤 매년 치러지고 있다. 올해로 105회째를 맞는 전국체육대회는 체육활성화라는 근간에 문화예술, 관광 등 축제가 접목되면서 '전국체전'으로 불린다. 도민체육대회도 도민체전

으로 더 익숙하다. 체육대회를 계기로 지역 내에서 축제가 병행 개최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체육대회와 문화예술 등 축제가 따로따로라는 비판이 있었다. 일각에선 개회식만을 위한 행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국체육대회 등에서도 축제는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결박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체육축전인 '체전'은 사실상 유명무실한지 오래다. 사흘간의 대회기간에 스포츠와 축제를 아우르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오랫동안 도민체육대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게 현실이다. 60년의 역사를 목전에 두고 도민체육대회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예술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대회를 원한다면 명칭부터 '제주도민체전'으로 바꾸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

그래픽 뉴스



열린마당

고사리철 길잃음 안전에 주의



홍 재 영
제주동부소방서 성산여성의용소방대장

매년 이때쯤이면 제주 중산간 도로에 늘어지게 주차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고사리 철이라 고사리를 채취하기 위해 나온 차량들이다. 고사리 채취 시기만 되면 고사리를 따라 갔다 길을 잃었다는 사고 소식을 뉴스와 신문을 통해 자주 접하곤 한다. 최근에도 고사리를 채취하러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과 소방관, 의용소방대가 동원돼 실종자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다만 보고 가다 입구로부터 멀어지고 일행도 보이지 않아 당황스러운 기억이 있다. 길을 찾아봐도 방향이 어딘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적도 있다. 이처럼 혹여나 길을 잃었다면 우선 119에 신고를 하고 길을 잃었음을 알려야 한다. 호루라기로 자신의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빠른 시간에 구조될 수 있으며, 휴대폰도 자주 사용하면 배터리가 소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사리 채취시 필요한 것은 휴대폰, 호루라기, 여벌옷, 생수 등이다. 반드시 혼자 가지 말고 2명 이상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른 사람이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밝은 색이 옷을 입는 것이 좋다. 각 지역에는 의용소방대가 있어 안전을 증시하며 만일에 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사리는 제수용 야채로 집집마다 꼭 필요한 저장 채소 중 하나지만 고사리 채취 전 안전수칙을 잘 살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출국납부금 인하 관광기금 운용 '빨간불'

정부가 각종 부담금 정비에 나서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대상에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이 포함돼 징수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면제 기준연령도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제반 여건이 변화

하면서 수십 개가 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정비 필요성은 제기돼 왔다. 문제는 부담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재정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재정 운용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짙은 후속대책이 없으면 폐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제주관광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출국납부금 징수액은 기존 대비 30%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징수액이 총 54억 원 정도인 만큼 약 18억 원 정도 줄어든다. 출국납부금은 전체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의 20% 정도를 수렴하고,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제반 여건이 변화

한라일보
발행인·인쇄·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www.ihalla.com
750-2214 / FAX 752-9790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고희식(前 삼도2동 동장·성안교회 원로장로·향년 90세)께서 서기 2024년 4월 18일 04시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 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일 포: 2024년 4월 21일(일요일)
발인예배: 제주성안교회 2024년 4월 22일(월요일) 오전 7시
장 지: 양지공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남편 경주김공중호(前 중등교사·前 서귀포불교문화원 부원장·향년 7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인 현효숙 며느리 박다희
아들 김현우 사위 오지현
딸 김현진 현숙 고창선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곡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리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매매
연동 2488-439
묘지매매(문중토지)
618㎡ 조성완료
3.3㎡ 당 55만원
☎ 010-3699-0254

왕칠나무는 제주가 원산지이며 최고의 약용식물임
왕칠나무의 효능
★ 혈액순환 촉진 ★ 간기능 개선
★ 생육 촉진 ★ 항암·항산화 효과
왕칠발효액의 효능
★ 소화 흡수를 상승 ★ 고기 특유의 냄새 중화
★ 요리시 원액: 물을 2:8의 비율로 희석하여 약6시간 이상 침적할 경우 목질이 부드러워 고기 특유의 냄새를 중화시킴
★ 음용시 원액: 물 혹은 커피, 요구르트 등을 2:8의 비율로 희석하여 수시로 드시면 좋음
왕칠재배농장
☎ 010-5169-4520

척추 허리골반
중풍마비(실어증), 어깨, 영치, 다리통증, O.X다리, 키크기, 성장 교정
1회 체험으로 대만족
Snpe, 활력도비술, 정통고려할법전승계승자
대한활법연맹
010-7121-8275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곰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안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010-3119-3820, 010-2696-9876